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2월 15일 (제78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인재사냥

제갈량이 보기 드문 인재임을 알게 된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바로 용중으로 찾아간다. 그러나 제갈량은 집에 없었다. 며칠 후 유비는 다시 말을 달려 용중으로 간다. 때는 겨울철이라 찬바람이 살을 에이는 듯했다. 이번에도 제갈량은 집에 없었다. 그러나 유비는 포기하지 않았다. 유비 일행이 세 번째로 용중을 찾아갔을 때, 유비는 제갈량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위해 그의 초가집에서 반리나 떨어진 곳에서부터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 그런데 제갈량의 집에 도착하니, 그는 초당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유비는 제갈량을 깨우지 않으려고 초당 뒷뜰 아래에서 그가 깨어날 때까지 공손히 서 있었다. 유비의 성심에 감동한 제갈량은 다년간 얻은 정치적 견해와 통일 전략 방침을 이야기했고, 유비는 자신을 도와 달라고 부탁한다. 제갈량은 흔쾌히 유비를 따랐다. 제갈량의 도움으로 유비는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실현해 나가는 역사적 행보를 내딛기 시작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삼고초려(三顧草廬)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정치든 경제든 목회든 다 사람이 답이다. 그래서 요즘 국가차원에서, 기업에서, 대학에서도 인재사냥, 더 나아가 인재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은 키워 쓰는 것이 아니라 찾아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택하고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나도 교회를 시작할 때 사람을 찾아 각 분야에 얹힘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묘비명에 '자기보다 훌륭하고 덕이 높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곁에 모아줄 줄 아는 사람 여기 잡들다'라고 남겼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묘비명도 '자기보다 현명한 인재를 모으고자 노력을 했던 사나이 여기 잡들다'라고 적혀있다. 일류국가로 가는 길, 초일류기업이 되는 길, 교회가 부흥일로로 달리는 길은 인재를 찾는 것이다. 사람을 찾아 써라.

기도는 넘지 못할 벽이 없다

믿음의 기도는 국경을 넘는다. 믿음의 기도는 우주도 초월한다. 육체는 속박할 수 있을지언정 믿음의 기도는 묶을 수 없다. 악한 마귀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게 환경을 들어 유혹하고 위협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제어할 힘은 없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소통이기에 그 파급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적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금번 코스타리카(Costa Rica) 집회를 통

턴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한다. 미가엘(Michael) 목사가 추가집회를 요청하면서 6시간 거리를 2시간 거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다. 물론 애초부터 6시간 거리라고 말했다면, 그곳이 아닌 다른 가까운 곳으로 일정을 잡게 되었을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왜 그런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그 먼 곳까지 가게 되었을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처

며 든 하나의 생각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믿음이였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났다. 수술을 받다가 죽는 꿈을 꾸 후, 수술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며 눈물로 기도한 한 여인의 믿음이 목사님을 그 먼 곳까지 끌고 간 것이다. 병을 고침 받고 해맑은 얼굴로 나타난 나탈리 사모를 보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군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다.



믿음의 기도를 일깨워준 산카를로스의 기적의 주인공들
(오른쪽이 아브라함 목사 부자와 나탈리 사모, 왼쪽이 미가엘 목사 부부)

해 다시 한 번 기도의 위력을 실감했다. 우리가 전혀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코스타리카의 산골짜기 산카를로스(San Carlos)라는 곳에서 한 여인이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한 것이 일으킨 파장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발견하게 된다.

목사님은 새로운 30년의 각오를 선포하시며 첫 해외집회지로 코스타리카에 도착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집회 요청이 더 들어오기를 기도하셨다는 점이다. 이미 예정된 집회 일정 외에 더 요청이 들어오기를 바라셨다는 이야기다. 목회자 세미나, 실업인 세미나, 교회 순회 집회, 야외집회 등, 이 일정만으로도 숨이 가쁠 지경인데, 집회를 마치고 출발하기에 앞서 단 하루의 휴식조차도 반납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

음 멕시코(Mexico)에 들어갔던 2001년, 우리는 산루이스(San Luis)라는 열사(熱沙)의 도시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다. 45도를 넘는 찜통더위에 술집을 청소해가며 가까스로 집회를 마친 우리는 심신이 지쳐있었다. 그리고 마치 모세가 지났던 광야와도 같은 사막 길을 차로 5시간 달려 티후아나(Tijuana)라는 곳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점쟁이와 간음한 목사의 아들이 회개하는 역사 속에 성령의 단비를 만끽하는 시간이었다. 그 집회로 우리는 이전의 모든 피로를 일거에 씻어내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귀국할 수 있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미시령 고개 같은 꼬불꼬불한 길을 6시간이나 달려가

"사실 이곳 집회가 없었다면, 나는 피곤에 지쳐 쓰러졌을 거다. 이 집회가 나를 살렸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탈리 사모도 살고, 목사님도 살고, 미가엘 목사도, 나아가 우리 일행도, 집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누렸다.

각본 없는 드라마, 곧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명작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한 여인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한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낙망치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2015 젊은이를 위한 비전 세미나

"삶의 지혜가 여기있다.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자."

시간: 2월 25일 저녁 8:00

장소: 엘루체웨딩컨벤션(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3번출구 방향)

대상: 젊은이라면 누구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0:20~22)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저는 종손이고, 칠남매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기일이 되면 꼭 제가 제사를 모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는 “제사를 못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제삿날이라고 친척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으니 얼마나 난리였겠습니까? 삼촌과 동생은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조상도 몰라본다고 심한 말을 던졌습니다. 제사상은 날아가고, 어머니는 우시고 정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제사 지내면 안 된다 말씀했다. ‘효’란 살아계실 때 부모님 뜻대로 섬기는 것이다. 절대 제사만은 못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냐?”고 하시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기로 차에 웃가지 몇 개 넣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 13년 동안이나 집에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고 가족들이 그리웠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제게는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감사하게도 제 어머니와 형제들도 다 예수를 믿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것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도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전10:20)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성경은 귀신에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곧 믿지 않고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고 죽었으면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다 귀신이라는 겁니다. 제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

망보는 자나 담념는 자나 동일한 도둑놈임을 알아

니다. 믿지 않고 죽은 당신의 남편, 곧 제 아버지가 귀신이 되었다는 게 싫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이 누구입니까? 마귀의 종개들 아닙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고요. 그러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에게 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고전10:22). 그래서 명절 때면 매번 빠지지 않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신앙에 타협은 없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전들은 신앙에 타협하지 않았기에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삼십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사자

굴에 넣는다’는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삼십일 동안이니 그동안만 속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양해를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느브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지만,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

은 자 신들을 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쪽 같은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탄복하셨고, 주의 천사들을 급파하사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에 비하면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받는 핍박은 견딜만한 것이 아닐까요?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성도들, 특히 며느리 입장인 집사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며느리로서 제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석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이 되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타협하여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나 신앙만은 절대 양보해서도, 절충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원수, 악한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이겨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고전10:13). 그리고

평소에 부모님을 잘 섬기고 형제와 우애한다면 제사 문제도 의외로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명절이 된다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흑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벧전3:1).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 첫 계명

입니다. 첫 계명이라 함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5~6)고 경고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증거판을 깨트려버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屠戮)하라 하겠느니라”(출32:27)고 하였습니다. 우상숭배 한 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 모세의 말을 듣고 레위사람이 죽인 숫자는 3천 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각 사람이

그 형제 죽인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출32:29). 우상숭배자들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자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건강과 재물을 아울러 얻은 자입니다. 그런 그가

호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분 뜻대로 섬기는 것이다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면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온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물욕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것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언약과 내게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왕상11:11).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후대에 나라가 찢기었고, 솔로몬의 군대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열 지파를 규합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이끌고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제일 싫어하는 제사를 지내면 더욱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날이면 온 민족이 우상에게 절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통탄하시겠습니까? 우리만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상하게 하지 맙시다.

가족과 즐겁게 설 맞으시고, 더는 안 믿는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는 기쁜 설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창조적 변화, 새로운 30년

미국 남서부의 해안가에 위치한 항구도시에서 갑자기 갈매기들이 떼 지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로 통조림을 가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던 시민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청정지역임을 내세워 광고를 해왔는데 만약 그 갈매기들이 오염된 물고기를 먹고 죽었다면 통조림의 판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전문가를 구성하여 그 원인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물고기를 가공할 때 머리, 꼬리 등 부산물을 바다에 버려왔는데 갈매기들이 그 부산물이 풍부하자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최근에는 머리와 꼬리를 가축용 사료로 가공하기 위해 버리지 않았더 니 갈매기들이 굶어죽은 것입니다. 갈매기들은 물고기를 스스로 잡는 야성을 상실한 채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갈매기들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에서 “결국 살아남는 생물은 강인한 생물도 아니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생물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생물이 종국에는 살아남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란 조직 또는 개인이 어떤 특징의 상태에서부터 또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적 변화란 기존의 지식을 응용하거나 이를 새로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 시스템 등을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만에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초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어려운 주위 환경에 대해 과감한 변화를 실천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각자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각오와 변화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가까이 접하고 있는 작은 일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시대의 상황에 대응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요소를 접목하는 변화,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적 변화 등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초석 목사님의 “명품 인생으로의 변화”, 이시대 목사님의 “존대말 쓰기” 등이 크거나 작은 변화의 시도가 아닐까요? 예배 볼 때 발을 앞자리에 올리거나 앞사람의 뒤를 치지 않기,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야기하기, 자리를 넓게 차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 주차장에서 먼저 가기 위해 무작정 차를 내밀지 않기 등은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아가 주차방식의 변화, 안내방식의 변화, 예배방식의 변화, 전도방식의 변화, 각종 조직과 모임 방식의 변화 등을 창조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교회 발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운명과 환경은 마음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운명과 환경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30년의 위대한 새 출발의 삶을 지속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관섭 장로 kwansup1029@hotmail.com

고통 받는 지를 생각이며

무심천 얼음 녹여 몸매 들어내니

애맑은 미소 속내 비치누니

천이절색 미인인양

고기떼 춤을 추며 노래함이 전국이 락락 없구나

독방 위 설중에 꽃망을 향기에 듬뿍 취한 나그네

기지게 떠머 락스인 춘중에 쫓노래 부르니

아~~ 봄 봄 봄 얼마니 익치며 그림던 봄인가

네 맘 같기같이 찢던 매섭던 거울 칼비람 눈 흘기며 떠나니

이 기쁨 기쁨 길 없어 김시의 눈물 흘리누니

이 은혜 하나님 내 아버지 은혜라

다가오는 여름도 막을 지 없도다!

실인 열매 꿈꾸며

아~~못 이루던 단잠이나 청해보지~~

어렵던 시절 생각이며 朋友

이 시(詩)는 목사님이 지난날 힘들고 어려울 때를 회상하며 쓰신 것으로, 어느 성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여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과 더불어 이 시를 보내 격려하셨다. 그는 이 시를 읽고 힘을 얻었고, 재기를 다졌다. 낙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를 통해 새 힘을 얻기를 바란다!

발상의 전환



지금은 고인이 된 모 경제인협회 회장과 경제인협회 임원들이 골프를 치러 가기로 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전날 밤 눈이 밤새 내렸다. 아침이 되자 경제인협회 임원들 사이에 전화가 부지런히 오갔다.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어떻게 골프를 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전화는 회장에게도 왔다. 그러자 회장은 “무슨 소리야? 약속한 것이니 당연히 오늘 골프를 쳐야 한다.”고 했다.

완강한 회장의 말에 다들 골프장에 모였다. 그리고 한 마디씩 한다. “눈에 공이 보여야 공을 치지.”, “골프는 틀렸고, 모처럼 다 모였으니 따뜻한 차나 마시면서 경제 이야기나 합시다.” 등등 이었다. 이 때 회장이 가방에서 꺼내놓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빨간 골프공이었다.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지을 때 회장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골프 치러 갑시다. 공이 안 보여서 못 치지는 않겠지요?” 지난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골프를 치러가자고 했는데 눈이 펄펄 오고 있으니 달리 방도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공도 하얗고 눈도 하얀색이라~’, 고민하던 회장은 머리를 쳤다. ‘그래! 눈 색

깔은 바꿀 수 없으니 공 색깔을 바꾸면 되지. 골프공이 꼭 하얀색이란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는 빨간 매직펜으로 공을 칠했다. 그렇게 해서 빨간 골프공이 탄생하게 되었다. 고정관념을 깨는 창의력, 발상의 전환. 이것은 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세상은 자원의 고갈로 망하지 않는다. 아이디어의 고갈이 없을 때 망한다. 아이디어, 이것은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블루오션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니 고정관념을 버려라.

예수중심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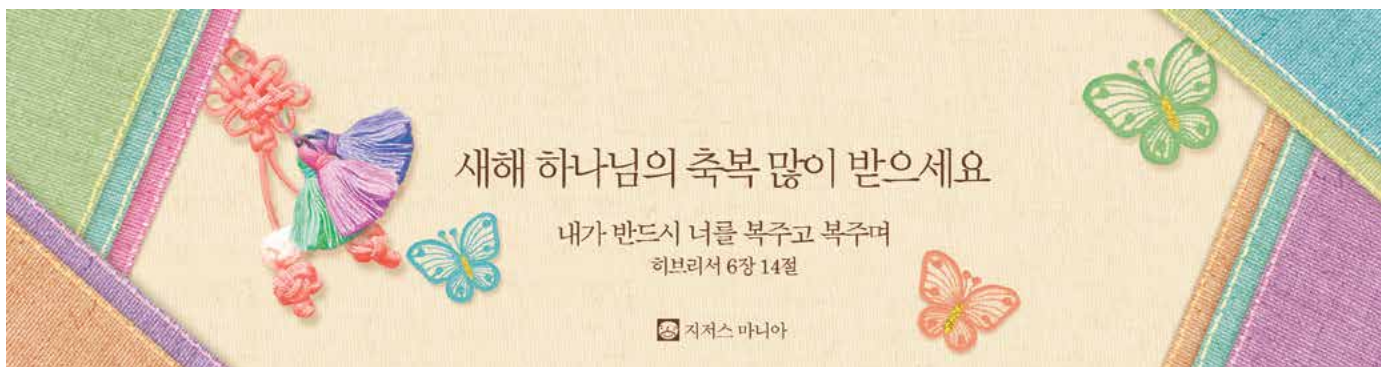
귀를 기울이세요

“업무상 실수로 고객과 마찰이 생겼는데 직접 사과하려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행을 신청했는데 만족합니다. 저 대신 삶은 소리 듣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한 역할대행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대리사과’를 한 회사원이 업체의 이용후기로 남긴 글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의 역할대행업체들은 원래 결혼식 주례, 하객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요, 최근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사례처럼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의뢰인을 위해 대신 사과하거나, 연인 간의 이별 통보나 전문직의 교육 연수 참석도 대신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해 자녀의 등·하굣길에 동행하는 일 등입니다. 예전 같으면 도저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던 사과와 감사, 사랑과 이별의 영역까지 서비스 상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효도’가 서비스 상품의 영역에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돈을 내면 의뢰자의 부모들에게 간식 등 선물과 안부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효도대행’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안부메시지는 의뢰자가 보내온 내용에 살을 붙여서 하도록 돼 있지만, ‘알아서 써달라’는 고객도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정(情)까지도 돈으로 사고파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참된 도리인지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알아야 할 것은 외식 하는 바리새인은 천국에 못간다는 사실입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991년. 여덟 살이 되던 해, 엄마 손을 붙잡고 한 국에루살렘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 해 가정 예배를 드리던 중 방언을 받았고, 집사님들이 노방 전도를 나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함께 따라 나가곤 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많아서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만으로 늘 마음만은 풍족했고 자신감이 넘쳤지요.

제가 가진 전부였던 5천원을 현금 통에 넣으며 더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릴 게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던 때, 제 나이 14살이었습니다. 신앙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말라는 이초석 목사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남들 보기에 고지식해 보일 정도로 신앙의 정도(正道)를 가려고 노력했고, 십일조면 십일조, 첫 열매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뻐하셨는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

까지 생각지도 못한 만남의 축복들을 통해 부족함 없이 좋은 길로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런 제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한 가지 병이 생겼는데요, 크건 작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위가 아파오는 것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아픔의 크기는 매번 더 커져갔지요. 돌아간 외할아버지도 저와 똑같은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위가 아플 때면 엄마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쪽같이 위가 나았고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제게도 믿음이 생겨서 위가 아프면 거울을 보고 제 스스로 귀신을 쫓았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깨끗해졌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는 주장은 이단이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경험을 통해 직접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믿음이 연약해서 한번은 우리 교회에 대해 크게 고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초석 목사님을 핍박하기에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다른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꿈을 꿔는데요, 공원에서 산책 중인 저를 향해 갑자기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큰 입을 벌리고 달려오는 겁니다. 놀란 저는 도망치다 꿈에서 깬데, 그 순간 위가 뒤틀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왔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그 한번으로 그 즉시 위가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요. 조금이라도 의심한 저를 용서해달라고요. 이초석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참 종이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예수중심교회. 여기서 다시 30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 장성한 제가 목사님과 교회에 힘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카피라이터 신은혜
dopa10203@naver.com

염려하지 않는 사람!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회랍어로 “디테디오스”라는 별칭을 붙여서 불렀는데, 이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테디오스 피터”라고 부른다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름 앞에 이 단어를 붙인 것은 ‘우리는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에게 잡혀 먹히면서도, 불 속에서 타죽어 가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 가면서도,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냐?”고 물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싶어서 자기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란 별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죽어버린 것처럼, 염려 근심을 한 짐씩 등에 짊어지고 걱정거리를 안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없는 근심을 만들어서까지 근심합니다.

어느 연구 조사에서 통계를 냈는데, 우리가 하는 근심의 8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근심이며, 12%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근심이며, 8%만이 자신들의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8%의 근심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고 실패케 하는 것은 근심입니다. 암이나 병은 사람의 육체만 파괴하지만, 근심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환경과 영혼까지도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이 안보이고 근심만 보이거든요. 마치 지하실에 갇힌 사람이 환한 태양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근심하시겠습니까?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달콤한 나의 목사님

처음 이초석 목사님을 만난 것은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 서였다. 부모님을 따라 갔었던 올림픽공원은 어린 나에게 너무 넓은 곳이었고, 예배 시간은 또 너무 길고 지루한 시간들이었다. 매주 역도경기장 곳곳을 헤매며 시간을 보내던 나는 어느 이름 모를 선생님의 안내로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내 안에는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렸고,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을 따라서 가는 곳이 아니라 손꼽아 주일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평소 잦은 감기로 고생을 했었는데, 감기가 잘못되어 편도선 수술을 해야만 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내게 수술은 감당하기에 너무 무섭고 끔찍한 일이었다. 그 때 나는 그동안 부모님을 따라 보아왔던 이초석 목사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올랐던 것 같다. 주기도문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던 그 때,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목사님께 편지를 썼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내 편도선이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의 기도와 안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어찌어찌하여 부모님의 배려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고, 편지를 읽으신 목사님께서는 선뜻 안수 기도를 해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달콤한 초콜릿 한 상자를 선물로 주셨다. 나는 수술을 받지 않았고, 더 이상 편도선 약도 먹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주신 것이다. 그 때의 기도 응답은 20년이 넘는 지금도 나에게 소중한 밑거름으로 남아있음을 나

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게 믿음이 훌쩍 성장한 것 외에 또 나에게 찾아온 큰 변화는 이초석 목사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었다. 어린 마음에 목사님은 너무나 무섭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다. 이제는 목사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알지만, 그 시절에는 목사님과 눈만 마주쳐도 내가 뒤로 나가떨어질까 봐(^^) 목사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그 날 주신 초콜릿 한 상자는 일종의 ‘사랑의 묘약’이었다. 그 날 이후, 목사님은 더 이상 무섭고 엄한 목사님이 아니었다. 그 시절의 나에게 목사님은 아버지보다 더 다정하고, 산타클로스보다 더 만남이 기대되는 멋진 분이셨다.

하지만 복이 복인 줄 알아야 그 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법이다. 생명의 은인과의 같은 목사님과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사춘기 시절과 대학 시절, 잠시 방황했었다. 그러다 문득 예수님의 품과 목사님의 인자하심이 떠올랐다. 그렇게 8년 만에 다시 찾아가 뵈 목사님은 그대로였다. 낯설도록 훌쩍 큰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던 목사님은 부모님만큼 날 걱정하시고 날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이자 참된 목자이셨다.

대학 졸업 후, 진로 문제로 고민하던 나에게 목사님의 말씀은 삶의 등대가 되었고, 머뭇거리는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목사님의 응원은 어린 시절의 그 초콜릿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달콤하고 힘이 나는 ‘사랑의 묘약’이었다. 다시 돌아온 나에게 목사님은 롤모델(role-model)이자, 영적 아버지, 늘 사모하는 나의 목사 등 내 인생의 중요한 멘토가 되어 주셨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나의 대학원 생활은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처럼’ 속도가 나기 시작하였고,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목사님의 넘치는 기도와 응원에 부응하기 위해 목사님의 자랑스러운 ‘훈지’가 되었다고 다짐해왔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다. 특히나,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초석 목사님이라면 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목사님께 자랑이 되겠다던 나의 다짐과 기도가 일정 부분 응답받게 되었다. 봄부터 나는 강의를 하러 간다. 그것도 공군사관생도들에게 스피치 실습 강의를 하러 간다. 나의 학력과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회가 온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기도 덕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욥8:7)’는 말씀을 심비(深秘)에 새겨본다. 그리고 부족한 것 많은 나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응원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문학교수 전훈지
ppjee@hanmail.net

대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20)

